

인체에너지장(신과학과 의학) (1부)

| 콜린 로스 | 김건 옮김 |

이 글은 인간의 안광(Eyebam) 탐지시스템, 인체 전자기 스캐너, 차크라 뇌파시스템 등을 발명한 로스 박사가 이 기구들의 논리적 기반인 인체에너지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몇 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인체에너지장』에서 로스 박사(Dr. Ross)는 신과학과 의학에 대해 다루며 인체에너지장에 대한 기본원리와 이론 그리고 다양한 적용사들을 소개해 놓았다. 오늘날 서구의학에서 행해지는 심전도 검사와 뇌파 검사는 인체에너지장 분야가 지니는 발전가능성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로스의 목표는 의학, 인류학, 농학, 예능분야, 전쟁무기, 보완시스템 등의 수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인체에너지장을 주류 과학으로 정착시킬 개념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스는 심신에 관한 문제와 과학의 철학에 대해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현대물리학과 공학을, 다른 한편으로는 차크라, 기 경락, 오로라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통합하기 위해 데카르트학파의 이원론사상과 서구 물질주의의 논리적인 토대를 반박하고 있다.

『인체에너지장』에는 특허를 받은 로스의 발명물들인 인간안광 탐지시스템(Human Eyebeam Detection System), 전신 전자기 스캐(Whole Body EM Scanner) 그리고 차크라 뇌파시스템(Chakra EEG System)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기구들은 인체에너지장 과학의 논리성, 효용성 그리고 가능성을 잘 보여줄 것이다.

로스는 오늘 이날까지 이 신과학의 논리들과 원리에 대한 탐구를 40여 년 동안 계속해왔다. 스스로 의식의 정도, 인류학, 철학, 그리고 물리학과 의학에 대해 연구하고, 이들을 실질적인 과학적 이론으로 통합해내는 데에 그만한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렇게 발전한 인체에너지장이론은 수많은 실험 가능한 예측들과 응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마음, 물리학, 에너지장, 에너지의학 또는 의식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여타 책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지닌다.

1. 이 책은 딱딱한 자연과학과 의학을 다양한 적용가능성들, 실험 가능한 가설들 그리고 여러 기구의 사용법들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2. 이 책은 물질주의, 이원론 그리고 환원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오류를 간단하고 명백한 논리로 밝힌다.
3. 이 책은 인체에너지장이론의 주요한 실험적인 검증을 제시한다.
4.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의학을 이론적인 부분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현실로서 통합한다. 이 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여러 다른 철학적 체계들에서 각각 기, 인간의 오라, 생명력, 정신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인체에너지장과 인체의 전자기장이 사실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 책은 밝히고 있다.
5. 이 책은 인류학, 의학, 농학, 전쟁무기, 보완시스템, 생리학 그리고 심리요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체에너지장이론의 실용적인 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 이 책은 인체에너지장을 연구할 시에 이용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적인 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7. 이 책은 또한 인간 안광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서양과학은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 안광은 실존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이 “과학적”이거나 혹은 “비과학적”이라고 정의내리는 서구과학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서구의 과학이 다른 여러 경우에서도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체에너지장 과학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통합한다.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심전도와 주관적인 심장 차크라의 에너지는 사실 동일한 것이다. 이들은 동일한 대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표현일 뿐, 그 실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 인체에너지장 과학은 과거에 주류를 이루었던 자연, 사회과학에 의해 초자연적이고, 종교적이고, 미신이나 마법, 초능력 같고, 원시적이라고까지 여겨지던 여러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이론, 방법론 그리고 기계사용법까지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 근거들

로스는 40년 동안 인체에너지장 과학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 책에 소개되어있는 내용들을 접하기 위해서 물리학, 과학철학, 인간의식, 인류학, 서양의학 그리고 동양철학에 관한 책들도 탐구하였다고 한다. 또, 로스는 『인체에너지장』에 소개해놓은 예측들과 실험들을 구상하기 위해 서구 물질주의의 핵심적인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가 신과학을 구상하기 위해 밟았던 일곱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장에 대한 직접적인 의식 가능한 경험
2. 이 경험을 의미 없는 것으로 무시하지 않기
3. 이 경험을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기
4. 주의 깊은 사고와 탐구를 통해 이 문제를 연구하기
5. 데카르트 학파의 이원론을 거부하기
6. 정신이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임을 제안하기

7. 과학적인 실험, 기구 그리고 예상들을 구체화하기

이 7단계가 없었더라면 인체에너지장 과학은 발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로스는 신체의 “생명력”과 전자기장이 동일한 것이라고 제안한다. 생명력, 기 또는 인간의 오라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모든 원자, 분자, 세포, 조직, 기관들 그리고 하나의 개체(전신)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장을 측정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상은 동양과 서양의 의학을 하나로 통합하고, 물질주의와 이에 기초한 서양과학에 의해 초능력적, 초자연적, 미신적이거나 혹은 원시적이라고 배척되어왔던 다양한 현상들, 치료기법들 그리고 민간신앙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정신은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인체에너지장이라는 과학을 창조하기 위해 로스는 스스로의 철학적 수준에 인지적 치료를 해야만 했다. 서구문명의 일원으로서 계승하여 스스로에게도 존재하던 인식의 오류를 수정해야만 했던 것이다. 로스는 서구문명에서의 정신과 육체의 분리 그리고 물질과 정신에 관해 생각하고, 데카르트 학파의 이원론과 환원주의를 부정해야만 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야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하는 과학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신과학의 안전한 철학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는 데카르트학파의 이원론과 환원주의에 대한 반론을 강구하였다. 이 새로운 인체

에너지장 과학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철학적인 기초를 필요로 하였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신과학에 적합한 새로운 철학을 수립하기 위한 로스의 시도들이다.

서양과학의 기본철학

환원주의는 모든 것들이 물리학의 근원적인 힘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서구의 과학, 의학 그리고 기술의 철학적 기원이다. 환원주의에 따르면, 우주는 하나의 복잡한 기계이고, 정신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없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환원주의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원론이 인정되지 않으면 환원주의는 저절로 무색하게 되어버린다. 그런데 동일한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환원주의, 실증주의, 무신론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는 모두 신(God)이나 정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원론 그리고 초과학적 정신, 영혼 또는 신과 같은 존재에 귀착되는 주장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원주의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자기 모순적이므로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학파의 이원론은 환원주의를 낳았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정신과 물질의 완전한 분리를 필요로 했다. 정신(신과 인간의 영혼)은 물질과 신체적 에너지로부터는 분리된 영역이나 혹은 차원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원주의자의 세계관 안에서의 “마음”도 “뇌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서양과학의 우주에서는 신, 영혼 그리고 정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오직 뇌만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생물학적 기작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몸과 마음 모두

의 무한한 질병들”의 치료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카르트의 말에서 서구 물질주의의 핵심적인 논리적 오류가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몸을 치유함으로써 마음의 질병도 치유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러한 “두 개의 분리된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철학은 그 자체의 핵심에서 자기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순에 대한 환원주의자들의 해결책은 마음을 하나의 부수현상으로 격하시키는 것이었다. 이 관점에서 “마음”은 뇌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진부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서양의 과학은 스스로가 정신(마음)의 존재를 부인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체에너지장』에서 보이고 있듯이 서구과학은 사실 위장된 어휘로 이를 은밀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서양과학의 핵심적인 논리적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리학에서의 미해결된 문제: 정신의 성질

현대과학은 스스로 종교나 미신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배제하여 스스로는 신이나 영혼 그리고 정신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미해결된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는 것을 금지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렇게 서양과학자들이 과학의 분야 내에서 정신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존속해왔다. 『인체에너지장』에서 로스는 정신의 성질이 물리학의 문제라고 제안하고 있다. 물리학이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고, 정신은 우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환원주의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논리적 오류

물질주의라고도 불리는 환원주의는 현재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다. 물질주의의 임박한 종말을 지지하는 한 가지 근거는 그 근원에 자리 잡은 핵심적인 논리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 오류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 짓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

현대과학에서의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은 환원주의자의 과학 안에 데카르트 학파의 이원론이 교묘히 녹아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영혼, 정신, 생명의 비약(élan vital) 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약 마음이 뇌의 부가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만약 생물학이 화학으로 환원되고, 화학이 물리학으로 환원된다면, 과연 생물과 무생물 간의 과학적인 차이란 무엇인가?

환원주의자의 기계론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에너지와 물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물질도 존재하지 않고, 물질도 에너지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면($E=mc^2$), 생물과 무생물 간의 근본적인 과학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

환원주의자들 관점에서의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에 따라 만약 우주에 영혼이나 정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사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존재는 결국 죽어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아무 다를 바가 없게 되고야 만다.

여기서 환원주의는 불가피한 하나의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제정신의 사람이라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환원주의는 일부의 것들은 살아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지만, 모든 것들은 결국 물리학에서의 동일

만약 정신이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면,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시공간, 물질 또는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정신이 존재한다.
인체에너지장 과학은 바로 이러한 간단한 발상에서 출발한다.

한 법칙들로 환원되어진다고 진술하는 데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들이 무생물일 때, 다른 것들이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것들은 무생물이 소유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특성을 지녀야만 한다. 또, 만약 현대물리학의 법칙의 바깥 영역에 속하는 “생명력”이 아니라면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 짓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과학은 흔히 말하는 “비과학적인” 생명력의 존재를 금기시하면서 동시에 생물과 무생물 간의 구분은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의 논리체계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이다.

물질주의의 핵심적인 논리적 오류의 내용

물질주의는 우주의 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무생물적인 물리적 힘들로 환원되기 때문에 “생명력”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떠한 것들은 살아있고, 다른 것들은 죽어있다.

모든 것들이 무생물적인 분자들의 법칙, 즉 네 가지 물리학의 근원적인 힘들(약핵력, 강핵력, 중력 그리고 전자기력)로 환원된다면, 영혼, 정신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정신은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물리학의 법칙들로 환원되는 상태에서 영혼, 정신 그리고 신과 같은 다른 초과학적인 힘이 존

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어떤 것이든 살아있을 수 없게 된다. 또, 그렇다고 정신이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 된다고 해서 생물과 무생물의 근본적인 구분점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고집하면서 생물과 무생물 간의 구분을 주장하는 데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리학에서 인정되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들

현대물리학은 네 가지의 근본적인 힘들을 인정한다. 이들은 중력, 전자기력, 강력, 약력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뇌로, 뇌를 화학으로, 화학을 양자역학으로 환원시킨다면 이들 네 가지의 힘들 중에서 어떤 힘이 인간의 정신이 되기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가? 로스는 바로 전자기 에너지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우리 신체의 전자기장이다. 그렇다면 모든 물질이 전자기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마음이나 정신은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어야만 한다.

정신의 특성은 물리학에서의 한 문제이다

만약 모든 것이 물리학으로 환원된다면, 정신의 특성은 물리학에서의 한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환원주의자들은 단순히 의식은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우주에 마음과 의식이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차의 엔진이나 플래시의 작동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성질과 특성도 물리학의 외적 범주에 놓일 수는 없는 것이다.

환원주의자들은 신, 영혼 또는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이 죽어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신의 죽음이 “마음의 물리적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리학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마음, 주관적인 의식 그리고 자각이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단순히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는 비과학적인 행위인 것이다.

인체의 전자기장은 인간의 정신이다

로스는 정신이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인체의 전자기장을 측정할 때, 우리는 사실 인간의 정신(human spirit)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은 어디든지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인체에너지장 과학이 존재하는 곳이다. 물론 인체전자기장의 근본적인 특성들은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로스는 좀 더 거시적인 수준, 생물권, 그리고 실제로 의식이 가능한 인간의 경험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우리가 현재 심전도와 뇌파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인체에너지장을 측정하고자 하며, 이 책에 설명되어 있듯이 좀 더 섬세하고 개념상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이에 임하고 있다.

우리가 데카르트학파의 이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신이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임은 당연한 사실이 된다. 만약 정신이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면,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시공간, 물질 또는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정신이 존재한다. 인체에너지장 과학은 바로 이러한 간단한 발상에서 출발한다.

2. 양자역학과 인체에너지장

이 장에서는 양자역학이 인체에너지장 과학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관련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양자역학이 신과학에 관련이 있는지는 자명하다. 이 신과학에서 로스는 우리 몸의 모든 원자, 분자, 세포 그리고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이 통일의 철학에 그 기원을 두기 때문에, 이는 곧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양자역학이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또 로스는 인체전자기장과 인간의 정신이 같은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양자역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자역학이 신과학에 관계가 없는가? 양자역학을 다룬 여타 책의 저자들은 현대물리학에 속하지 않은 그 무엇(의식)이 어떻게 물질과 상호작용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은 물질과 에너지로부터 다른 영역과 차원에 존재할 경우에만 물리학의 밖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원론을 거부하고 정신이 진정으로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임을 인정한다면, 의식과 물질의 상호작용은 물리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지각은 물리적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로스는 이원론이 만든 신과학의 출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양자역학의 철학적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이원론은 인체에너지장과 마음이 통일된 세계관 속에서 일련의 실험들과 기술들을 통해 연구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원론을 제외시키기만 한다면, 인체에너지장 과학은 시험 가능한 가설들, 실험들, 기계의 사용법, 데이터 또는 실용적인 응용들을 구성하기 위해 양자역학의 어떠한 철학

적인 해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양자역학이 인체에너지장 과학과 관련이 없는지는 사실 물리학에서의 이중슬릿 실험을 관찰해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로스는 양자역학의 철학적인 해석들에서 발견되는 논리의 오류들을 보여주고 있다(이중슬릿 실험에 관한 로스의 분석은 이 책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부록에 실려 있다). 그는 인체에너지장이론이 양자역학의 철학적인 의미들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적고 있다.

3. 회의론자와 신봉자: 이원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에너지장을 측정할 수 있게 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어떤 한 에너지 치료사가 분명히 치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신과 환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에너지장의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아닌 신념과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들은 증거로 확립된 서양의학의 일부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비슷하게 과학자들은 “정신적인” 영역에, 그리고 신봉자들은 “과학적인” 영역에 서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원론의 사회학에 막혀서는 인체에너지장의 과학적 연구가 진행될 수 없다고 로스는 경고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원론을 거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탈 수 있다. 만약 정신이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면, 에너지장 치료사들의 신념들은 과학의 관점에서 비취지는 미신이 아닌, 모두 하나하나의 실험 가능한 과학적인 가설들이 될 수 있다. “생명력”을 찾기 위해 다른 차원이나 영역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간단히 인체의 전자기장만 측정해보면 되는 것이다.

신과학은 인체에너지장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한다.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히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한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분명히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장 차크라(심전도)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특정 약물치료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 방지할 수도 있다. 심전도의 형태로 심장 차크라를 해독해보는 것은 심장 차크라의 빛이 머지 않아 꺼질 것인지를 알아보는 좋은 예측자가 되기도 한다. 이는 인체에너지장을 응용한 하나의 실례로 중요한 과학적 연구들을 보증하는 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집중명상이나 치료사의 손을 흥부 위로 지나게 하는 행위 또는 어떤 특수한 방의 전자기장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행위 등을 통해 심장의 부정맥을 좋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인체에너지장 과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체에 있는 7개의 차크라(Chakra), 즉 에너지의 중심에 관한 연구는 수천 년간이나 지속되어왔다. 현대의학의 뿌리는 변형되고, 위장되고, 잊혀져버린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는 환원주의의 의학으로부터 금기시된 고대 에너지의학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체에너지장 과학이 철학, 사회학 그리고 이원론의 장벽에 의해 봉쇄되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인체에너지장 과학의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서양의학을 이러한 고대의 전통지식들과 재통합시키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곧 출판 예정인 '인체에너지장(신과학과 의학)'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콜린 로스 박사(Colin A. Ross)** | 콜린 로스 박사는 캐나다 Alberta 의과 대학을 1981년에 졸업하고, 1985년에 Manitoba 대학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전문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는 정신과 에너지에 관한 135편 이상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십여 권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특히 자신이 발표한 인체에너지장이론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오고 있으며, 텍사스 주, 미시간 주,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하는 여러 병원에 자문 및 고문직을 맡고 있다. 1995년부터는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심리학적 외상 관련 연구소(The Colin A. Ross Institute For Psychological Trauma : <http://www.rossinst.com/>)를 운영하면서 현재는 중국 연구진과 함께 인체에너지에 대한 국제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인 학자이다.

역자 | **김건** |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중학생 시절부터 인체에너지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연구들에 대해 공부하며 교류를 해오고 있다. 2009년 초부터는 로스 박사의 인체에너지장(Human Energy Fields)에 관한 연구결과와 특허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 분석해오고 있다.

추천도서 | 마음에 닿은 책 | Good Book

인체에너지장(신과학과 의학)

HUMAN ENERGY FIELDS(A New Science and Medicine)

콜린 로스 저 | 김건 옮김 | 군자출판사 | 18,000원

출판예정 : 2010년 10월 20일

페이지 : 약 200페이지

판 형 : 4×6배판(188×257)